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2

이 세상 부처 아닌 존재가 없다

[원문] 불신보편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切同) 광대원운항부진(廣大願雲恒不盡) 왕양각해묘난공(汪洋覺妙妙難窮) - 관악산 연주암

[번역] 이 세상 부처님의 몸, 널리 두루 하고 삼세의 여래가 모두 똑같네. 부처님 서원 넓고 커 항상 다함이 없고 깨침의 바다 또한 넓어 끝을 알기 어렵네.

[선해(禪解)] 인도의 코살라국 프라세나지 왕은 여러 부인을 두고 있었다. 왕은 그 중에서도 말리카 부인을 가장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산책을 즐기다가 말리카 부인에게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조용히 물었다. 왕은 말리카 부인이 당연히 "대왕이시여, 바로 당신이시요."하고 말하기를 기대했지만, 뜻밖에도 그녀는 "대왕이시여, 아무 리 생각해 보아도 나 자신 보다도 더 소중한 이는 세상에 없는 것 같사옵니다." 하고 왕의 기대를 무참히 깨버리고 말았다.

왕은 그 순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지라 더욱 화가 나서 부처님을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궁극한 점에 대해 그 해답을 구하고자 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의 생각은 무한하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이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도 남을 해치지 않는다."

왕은 그제야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 누구도 남이 자신을 위해 수행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리카 부인은 바로 불교의 진면목(眞面目)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깨달음의 길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음을 알고, 여자도 진리를 구하는 결심을 일으키면 '깨달음을 구하는 자'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말리카 부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귀의하여 세존 앞에서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서원을 세웠다

"첫째, 계를 범하지 않겠다. 둘째, 나이 많은 어른들을 공경하겠다. 셋째,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 넷째, 그 어떤 사람이나 그들의 소유물에 질투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어떤 물건도 소유하지 않으며 절대로 아가워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여

섯 번째,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지 않고, 받은 것은 모조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일곱 번째, 모든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고, 보시하고 상냥하게 말하며,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되 결코 자신만의 편익을 위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며, 차별 없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 여덟 번째, 가족이 없어 기쁠 곳 없는 사람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또는 병들어 괴로워하는 사람이나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바른 도리와 이치를 들려주어 그들을 고통에서 구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겠다. 아홉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를 학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계를 범하는 사람을 보면 힘이 닿는 한 꾸짖고 타일러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겠다. 열 번째, 바른 가르침 얻기를 잊지 않겠다."

말리카 부인의 서원들을 읽어 보면, 누구나 능히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가정 생활의 참된 뜻은 서로 힘을 모아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기회를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불자들도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마음을 일으켜 말리카 부인처럼 큰 원을 갖는다면, 진

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강득룡(康得龍)과 서견(徐堅), 남윤진(南尹珍) 등이 그 자리에서 고려의 수도였던 송도(松都)를 바라보며 통곡하였는데, 이 때문에 '주인을 그리워 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연주암은 1868년(고종 5) 명성황후의 하사금으로 극락전과 용화전(龍華殿)을 신축하였으며, 1918년에는 경산(慶山)의 주도 아래 중수 작업을 이루어졌다. 1928년에는 재운(在雲)에 의해, 1936년에는 교훈(敎訓)에 의해 새로 건물을 세우거나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본당인 대웅전과 그 뒤편에 금륜보전(金輪寶殿: 삼삼각이 있고 연주대에 응진전이 있다.

금륜보전은 현재의 건물 중 제일 오래된 건물로서 1929년에 신축한 것이고 대웅전 및 기타 건물은 1970년대 이후에 지은 것이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모신 천수관음전과 효령대군 영정(경기도 지방문화재 제81호)을 모신 효령각은 1996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대웅전 앞에 있는 높이 3.2m의 고려시대 양식의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4호)은 효령대군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탑은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뛰어나며 단아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럼 대웅전의 주련 내용을 속으로 들어가 보자.

『불신보편시방중 삼세 여래일체동』: 이 세상 부처님의 몸, 널리 두루 하고 삼세의 여래가 모두 똑같네.

이 세상 부처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길가에 피어 있는 꽃 하나, 바람 소리하나 푸른 나뭇잎 하나 부처님이 나무되지 않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불신은 항상 보편(普遍) 타당하여 위엄과 권력을 나타내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에게 항상 인자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신다. 더욱이 이 여래의 마음은 전세, 현재 내세에도 항상 똑같이 중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다. 즉 일약만 년이 지나도 부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다.

『광대원운항부진 왕양각해묘난공』: 부처님 서원 넓고 커 항상 다함이 없고 깨침의 바다 또한 넓어 끝을 알기 어렵네.

부처님이 중생을 깨치기 위해 세운 서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넓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 세운 서원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가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란 삼독(三毒)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열심히 수행하여 깨침의 바다에 당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 조계종 원로의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바로 '자신'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에 대한 자비심도 넘쳐

정 훌륭한 불제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서 타인의 사랑도 넘쳐난다.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처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진정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자신의 마음을 밝게 할 서원을 세우고 수행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불자의 정신이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관악산 연주암이다. 조계종 제2고구 분사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이며 나한도량(羅漢道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연주암은 677년(문무왕 17)에 의상(義相: 652-702) 대사가 창건한 절로, 의상 대사가 관악산 연주봉 절벽 위에 의상대를 세우고 그 아래 골짜기에 절을 짓고 관악사(冠岳寺)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 이후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가 의상대와 관악사를 중수하고 조선왕조의 변장을 기원하는 200일 기도를 올렸다. 연주대는 이성계가 무학 대사의 권유로 의상대 자리에 석축을 쌓고 30m 정도의 대를 구축해 그 위에다 암자를 지은 곳으로 1411년(태종 11), 동생인 충녕에게 보위를 양보하고 전국을 떠돌던 양녕과 효령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관악사를 현 위치로 옮기고 연주대의 이름을 따서 연주암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데 관악사의 이름이 연주암으로 바뀐 유래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2

모든 것이 마음의 움직임

[원문]

此心不離四大色身中. 若離此心 即無能運動. 是身無知 如草木瓦礫 身是無情 因何運動. 若自心動 乃至語言施爲運動 見聞覺知 皆是動心動用. 動是心動 動即其用. 動用外無心 心外無動.

이 마음은 사대로 된 육신을 떠나지 않으니, 이 마음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느니라. 이 몸은 아는 것이 없으며 초목이나 기왓장과 같은 것이라 감정이 없으니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자기의 마음으로 말하고, 분별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니라. 즉 모든 것이 마음의 움직임이고 작용의 움직임이니라. 움직임을 마음의 움직임이고 움직임을 곧 마음의 작용이니 움직임과 작용 이외에 마음이 없고, 마음 없이 움직임이 있을 수 없느니라.

[해설]

달마 스님의 혈맥론 마지막 부분인데 바로 '체(體)'와 '용(用)'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근본 실상, 즉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세계, 달마 스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실상은 수차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분명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 입을 때면 그르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달마 스님이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세계입니다. 달마 스님은 바로 수행자들이 그 자리를 깨달도록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사대(四大)로 된 육신을 떠나지 않으니...' 사대는 곧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지, 수, 화, 풍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우주도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의 성질, 불의 성질, 흙의 성질, 바람의 성질이 모두 다르기에 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서 마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데기죠. 사람이 죽은 후 매장을 할 때 생전에 애착했던 몸통아리는 풍뎉어 버려서 매장한 후 봉분을 발로 밟아 밟아서 문질러요. 그때 자신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지, 마음이 빠져 나가면 몸은 껍

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도 "이 마음은 사대로 된 육신을 떠나지 않으니, 이 마음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몸은 아는 것이 없으며 초목이나 기왓장과 같은 것이라 감정이 없으니,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마음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니 기왓장이나 초목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경을 읽어드리거나 염불을 해드리는 것이 큰 위안과 힘이 되지, 껍데기를 위해서는 그 무엇을 한들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말하고, 분별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니라.'

육신이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고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 육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즉 모든 것이 마음의 움직임이고 작용의 움직임이니라.'

모두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고 거짓말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모두 내 마음의 장난입니다.

'움직임은 마음의 움직임이고, 움직임을 곧 마음의 작용이니, 움직임과 작용 이외에 마음이 없고, 마음 없이 움직임을 할 수 없느니라.'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마음이 한다는 얘깁니다. 마음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은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얘깁니다.

왔다 갔다 하며 움직이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작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마음이 하는 것이지만, 진짜 나는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나는 물질이 아니니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지, 본래 마음에서는 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작용의 본체가 공하다는 얘기는 본래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것이고, 오고 감이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고 듣는 것은 마음이 작용한 것이지, 진짜 나는 움직인 게 아닙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중국 청나라 때의 달마도

Advertisement for 'Heavenly Secret' (天機秘傳) series, featuring '365 Daily Fortune' (365일 매일 한 장씩 매일 운세!) and 'Divination Method' (대정비법!). Includes pricing for 4x6 and 4x4 versions.

Advertisement for 'Divination Method' (대정비법!) series, featuring '100 Super Secret' (百超歸藏術) and 'Divination Method' (대정비법!). Includes pricing for different editions.